

#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융합관광경영학과	파견대학	나고야 시립 대학교(Nagoya City University)
파견기간	1년 2학기	파견국가	일본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의가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8. 17.

#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후, 현지대학에 지원할 때의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 서류 목록과 각 서류 준비 과정
- 현지대학의 신청 절차 및 전체적인 진행 일정
- 신청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 학교 측에서 메일이 옵니다. 제 경우에는, 교환대상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내, COE신청 파일, 기숙사 신청 서류, 본인이 듣고자 하는 수업 제출 서류가 왔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느꼈던 것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인 COE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나고야 시립대학 측에서 발급되는 즉시 메일로 보내주는데, 발급이 안된다면 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기에 꼭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0월 중순에 신청해서 1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 이걸 보시는 일본 유학 예정이신 분은 부디 일찍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제출하는 시간표의 수업은 공식 홈페이지의 강의계획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현재 직접 영사관에서 신청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대행사를 이용했습니다. 후기가 가장 많은 유니티스 라는 대행사를 이용하였으며, 신청도 간단했고 수도권에 살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등기도 지원하고 있어 추천합니다. 비자 발급은 2일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원래 기숙사를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신청 자체는 대학에서 보내준 신청서만 작성하면 따로 입주날짜가 가까워질 때 입주 가능날짜와 함께 메일이 옵니다. 25년도 1학기의 입주 가능날짜는 3월 19~23이였습니다.

메일로 개학 전 진행되는 일본어 수업과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알려줍니다. 일본어 수업은 주에 2번 총 2주 정도 진행되었던 것 같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교수님과 교류센터분들의 소개, 시간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절대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메일로 본인의 시간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어로 진행되는 교양 과목, 외국어 수업(독어, 중국어 수업 등), 수화 수업은 수강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 대상 수업은 최대 4개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후 기다리다보면 개강을 하게 되며 본인이 신청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COE작성이였습니다. 작성 해야하는 칸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번 수정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많이 갔던 편이라, 지금까지 일본을 몇번 방문 했는지 작성하는 칸이 있어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둔 게시글이 많아 저는 그것을 보며 작성하였습니다. 혼자서 전부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기에 여러 정보글을 보며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 출국 전 준비한 내용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비자 발급 과정, 소요 시간, 유의할 점
- 항공권 예약, 현지 도착 후 숙소까지의 이동 방법
-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교통카드, 통신 등 현지 생활 준비물

위에 작성한 내용과 조금 겹치지만, 비자 발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COE발급->비자 신청->비자수령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발급은 보통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저는 10월 중순에 신청하여 1월 30일에 왔기에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COE가 발급되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유니티스 라는 대행사를 이용했습니다. 친절하고 빠르게 해결해주셔서 추천드립니다. 비자는 2일만에 나왔습니다. COE 서류 작성만 유의한다면 이 과정에서는 그리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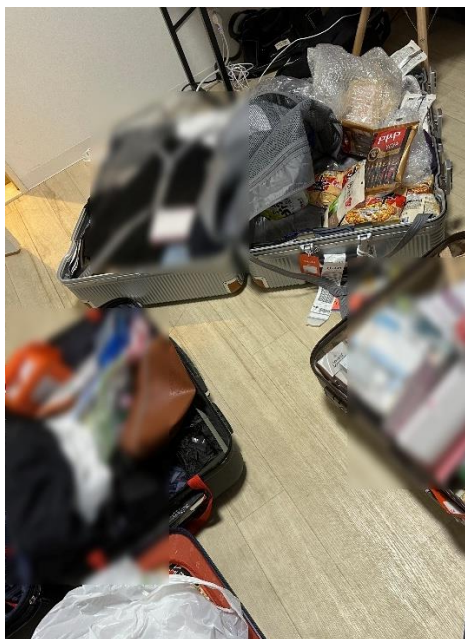
저는 아시아나 비즈니스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3월 14일 출국으로 구매하였는데, 2월 초에 찾아봤기에 꽤나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약 30만원). 항공권은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나라에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비즈니스는 위탁 수화물을 32KG 2개를 가져갈 수 있어 짐이 많은 분들은 비즈니스도 염두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집을 알아봤기에 별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대부분 뮤스카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메이테츠 특급으로 가나야마 역까지 이동 후, 메이조선으로 가미마에즈, 쓰루마이 선을 타고 가와나 역에 내린다면 저렴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날이기에 많이 힘들것을 생각해 택시 이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가나야마역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로 11분)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은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추려보자면 수건, 돼지코, 전기장판, 떡볶이 가루, 코인육수 등을 추천합니다. 특히 전기장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막 도착했을때의 날씨가 생각보다 춥고 일본의 난방은 온풍기로 하기에 전기장판이 없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수건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쓰는 것 처럼 도톰하고 질 좋은 수건이 비싼편이라 적정량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떡볶이 가루는 정말 유용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 음식이 느끼하여 한국의 매콤함이 그리울게 분명합니다. 꼭 맛별로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류가 대세인지라 주변 친구들은 떡볶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접할 기회가 생긴다면 떡볶이를 만들어서 대접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떡볶이 떡은 마트에 다 팔고 있습니다!

나고야는 교통카드를 마나카라는 것을 사용하지만,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 예전부터 핸드폰에 파스모라는 교통카드를 넣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편하고 일본 어디서든 사용가능하기에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귀찮은 분은 모바일 파스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고야시립대 측에서 제공하는 학생증이 교통카드 겸용이기에 따로 교통카드를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중인데, 라쿠텐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일 개통이 가능하고 데이터 사용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으며, 20기가 이상 사용하면 요금이 고정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잘 사용중이지만, 단점이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선 전파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잘 다니지 않아 괜찮았지만, 불꽃축제에 갔을 때 핸드폰이 멎통이되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기에 여러가지 통신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 수업 정보 (분량: 1장)

- 교환학생으로 수강한 수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수강한 과목과 각 과목의 주요 내용
- 수업 분위기 (예: 수업별 학생 수, 발표·과제 중심 등)
- 수업 난이도, 어학 능력 요구 수준

저는 입문경영학, 일본어 문화세미나1, 일본어 프레젠테이션1, 일본어 라이팅1, 일본어 리딩리스닝1, 나고야학1, 음악표현1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신청을 한 기준은 중간과 기말 시험이 없고 레포트 대체거나 발표인 수업, 제 일본어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 기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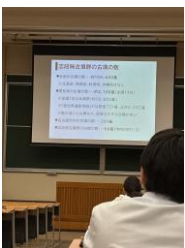
입문경영학은 경제학과 전공이어서 적어도 JLPT N2수준은 되어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명대로 경영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수강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으며 각 수업마다 소레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적이 결정됩니다. 중간중간 중간 평가가 있어 그 날 수업에 불참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어 문화세미나, 일본어 라이팅, 일본어 리딩리스닝 수업은 전부 유학생 대상 수업입니다. 유학생 대상 수업이기에 그리 높은 수준을 요구하진 않지만, 적어도 JLPT N3이상은 되어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유학생 대상이기에 적은건 10명 정도, 많으면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강합니다. 일본어 라이팅, 리딩리스닝 수업은 일본어에 대한 수업이라 일본어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본어 실력에 자신이 없고 실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이 들으면 좋은 수업입니다. 교수님도 굉장히 친절하셔서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해주십니다. 일본어 문화 세미나는 기말에 발표로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이 발표의 수준이 꽤 높습니다. 일본어로 작성된 일본의 논문 1개를 꼭 참고하여 일본과 본인의 나라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하는것이기에 일본에서 논문을 찾아보는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일본어 프레젠테이션도 유학생 대상 수업이지만, 이 수업은 과목명대로 발표가 주된 수업입니다. 대부분의 수업시간이 발표를 위한 준비시간이며, 약 3일에 걸쳐(3주) 각 팀별로 본인이 선택한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중간발표와 기말 발표가 있으며 두 발표의 주제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기말발표는 앙케이트 같은 것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넣는 등 중간 발표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어려운 수업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며 발표내용을 보며 첨삭을 해주셔서 이 수업 또한 부담없이 듣기 좋아 추천합니다.

나고야 학은 위에 설명한 입문경영학 수업과 같은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 수업도 꽤나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며 매 수업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바뀝니다. 각 교수님들의 전공과 관련된 나고야에 대한 역사나 이야기를 배우고, 그에 대한 소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와(나고야의 애니, 나고야의 역사, 나고야에 관련된 신화 등) 나고야에 대해 깊게 알고싶다거나, 일본의 역사에 흥미가 있는 분이라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수업을 들은 유학생은 저 혼자여서, 교수님이 튜터를 모집해주실 정도로 유학생에게 친화적인 수업이기에 일본어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표현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교사가 꿈인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음악수업을 즐겁게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이기에 굉장히 활기차게 진행됩니다. 주마다 돌아가며 앞에 나와서 피아노를 친다거나, 유치원생에게 하듯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동요들을 알게 되어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평가는 기말에 피아노, 노래, 춤 이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앞에 나와 시연하면 됩니다. 피아노를 쳐본 적 없는 학생들도 괜찮다고 해주시고, 유학생 친화적인 수업이기에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수업 중 하나입니다.



####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 학교 안팎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 캠퍼스 시설 및 서비스
- 필드트립,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한 활동
- 학교 주변 맛집, 쇼핑 장소, 관광지 등 유용한 지역 정보

현재 나고야 시립 대학교는 공사중이라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긴 했지만, 캠퍼스 내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총 3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식당, 테라스(카페), 편의점 이렇게 있는데, 학식을 사먹거나, 테라스라는 학교내에 있는 카페에서 파스타나 이런저런 음식을 사먹거나, 편의점에서 사서 테라스에서 먹거나, 옆에 있는 식사 가능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학식은 5천원 내외로 굉장히 저렴하며 테라스는 만원 내외로 3군데 모두 저렴하여 그날 먹고싶은 곳으로 가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이 세군데 모두 가기 싫을 땐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스키야 라는 음식점에서 고등어 정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스키야는 규동 체인점인데, 정말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추천합니다. 근처에 코코이치방야라는 카레 전문점도 있고 스파게티 전문점도 있고, 조금 멀게 역쪽으로 나간다면 정말 맛있는 돈가스집이 있습니다. 나고야 명물인 미소카츠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추천합니다. 이곳은 카운터 5석 뿐이라 시간을 잘 보고 가거나 테이크아웃을 추천합니다.

경제학과는 타키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데, 6번 건물까지 있지만 보통 1,2,3번 건물을 사용합니다. 2번 건물의 2층 계단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수업 전까지 시간이 남거나, 수업준비를 해야할때는 그곳을 추천합니다. 벽쪽에 콘센트도 있어서 특히 컴퓨터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6번 건물에 무료로 프린트가 가능한 숨겨진 장소가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도 잘 모르는 정보인데, 동아리 선배가 알려주어 저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프린트를 하려면 1장에 60엔, 한국 돈으로 대략 6백원이 들기에 이 곳을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경음악부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교환학생을 온 후배의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꼭 공연을 해야해서 저도 부담없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회비는 1달에 2000엔으로 꽤나 비싼 편이지만, 일본의 열정적인 부활동을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친한 현지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기에 동아리 활동은 꼭 해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뒷풀이 회식이 있는데, 일본은 만 20세가 되어야 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은 전부 술을 못먹어 콜라나 우롱차를 마시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 나고야의 큰 행사를 3가지 꼽아보자면 꽃축제, 불꽃대회, 아츠다 신궁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꽃축제는 3~4월에 열립니다. 저는 집 근처인 츠루마이 공원에서 벚꽃축제를 즐겼는데, 이곳 뿐 만 아니라 나고야 성 근처에서도 성대하게 열리며, 근처에 야타이라 불리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고, 공연을 한다던가,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생겨 정말 즐겁습니다. 밤에는 라이트업도 진행되어 예쁜 사진도 많이 얻을 수 있어 만약 1학기에 일본에 온다면 벚꽃축제에 꼭 참여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이번엔 불꽃축제에 대해서 입니다. 1학기동안 나고야에선 큰 불꽃축제가 2번 있었는데, 하나는 메이코 수상 예술 불꽃축제, 다른 하나는 나고야 미나토 불꽃축제입니다. 저는 일정상 메이코 수상 예술 불꽃축제에만 참여했는데, 음악에 맞춰 터지는 화려한 불꽃이 정말 아름다웠고 일본의 전통 의상인 유카타를 입고 즐겨서 그 순간 정말 제가 일본에 있다는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본은 불꽃축제가 정말 많이 열리는 나라이고, 여름은 불꽃축제의 계절이라 불릴 정도로 자주 열리기에, 이후에 일본으로 오는 학생분도 정보를 잘 찾아보고 꼭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쿨링 스프레이, 쿨링 티슈, 손선풍기를 꼭 구비하고 바닥에 앉아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돗자리를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츠다 신궁 축제인데, 이 축제는 말 그대로 신궁에서 열리며 밤엔 불꽃축제도 함께 합니다. 일본의 축제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꼭 참여해야하는 축제이며 나고야 최대의 축제이기에 1학기에 오는 학생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토의 기온마츠리나 오사카의 텐진 마츠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

쇼핑에 대해서인데, 사실 전 1년간 유학하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자주 가는곳은 집 근처의 마트인데, 야마나카라는 마트를 자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의 친구들은 교무슈퍼라는 마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들었으며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관광오는 사람들이 들려 구경하기도 좋은 슈퍼같습니다. 가끔 크게 장을 봐야하는 경우엔 이온몰에 들려 쇼핑한 후 이온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곤 했습니다. 직접

밥을 만드는게 생각보다 귀찮기 때문에 가끔은 밖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나고야는 생각보다 관광지가 없지만, 추천한다면 나고야성, 사카에 거리, 츠루마이 공원 등이 있습니다. 츠루마이 공원에서 생각보다 행사를 많이 해서 만약 날씨가 잘 맞는다면 한 번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처에 Suripu라는 빵집이 있는데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빵집이라 기회가 된다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카에는 번화가라 쇼핑이나 백화점, 이자카야등을 가고 싶을 때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맛있는 맛집들도 많아 관광을 온다면 꼭 가야하는 장소입니다.



##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 생활비와 지출 패턴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기숙사 종류와 월별/학기별 비용
- 식비, 교통비, 여행비, 기타 개인 지출 등

저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월세가 38000엔, 전기세나 가스비등을 전부 합해서 13200엔이 듭니다. 그렇게 총 51200엔을 월마다 내고 있습니다.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자전거로 15분 정도의 거리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다음 유학생생활을 하게 될 학생들이 가장 알아야 할 내용인 비용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현재 고정지출로 집세 51200엔을 내고 있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 3달 동안은 1달에 15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집세 포함). 가계부를 기록해왔는데, 초기 3개월 간 일용품을 구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용품은 휴지,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서랍장, 옷걸이, 청소도구, 세제 등이며 초기에 20~30만원 정도의 지출이었으며 그 뒤로는 10만원 내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라멘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1끼는 마카나이라 불리는 직원식을 무료로 제공해주어서 식비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초기에 식비는 30만원 정도 나왔으며, 그 뒤로는 20만원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직접 요리한것,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느라 그리 식비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 1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어서 간식을 좀 많이 사먹은 편이라 장본 비용, 외식, 간식비 전부 합치면 4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서 제가 자주 밖에 놀러가는 편이 아님에도 달에 5만원정도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5월에 인터넷으로 자전거를 구매해 그 이후에는 교통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전거가 있으면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학교를 다닐 때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기에 일본에 온다면 자전거 구매는 필수입니다.

여행비용은 저는 한 번 놀러갈 때 마다 3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주로 간사이 지방인 교토나 오사카로 놀러갔기에, 신칸센으로 간다면 왕복 12~15만원 정도 들지만, 버스로 간다면 비성수기엔 미리 예매시 편도 1600엔으로 교토에 갈 수 있어 가까운 거리는 버스를 추천합니다. 성수기엔 2800엔이지만 신칸센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숙소도 잘 찾아본다면 1박에 5~6만원(1인기준)으로 머물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 교토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박 4일에 16만원 정도로 예약하여 잘 머물다 왔습니다. 일본에 사는 경우 따로 쇼핑은 잘 안하게 되기에 숙박과 체험을 제외하면 식비 지출분이라 굉장히 저렴하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 6. 자기평가 (분량: 1~2 장)

- 교환학생 경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얻은 점, 성장한 부분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왜 필요했는지
-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극복 방법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저는 제 스스로가 내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해외 생활이었고,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일본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이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생활의 불편함도 있었고, 언어 장벽 때문에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점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어 실력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먼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에 직접 부딪히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마주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으면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환학생 생활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이 점점 커졌고, 그래서 제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일본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을 걸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사람을 대하는 화술과 사교성도 많이 발전했다고 느낍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하다 보니, 대인 관계에서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주변 친구들이 예전과는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결국 이 경험은 단순히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꼭 경험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과 한국의 축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책이나 영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참여하며 느끼는 축제의 분위기와 의미를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 번쯤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제 오랜 바람도 있었습니다. 여행과는 다른 '생활'의 형태로 외국에서 지내며, 그 안에서 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제 힘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지만, 저는 그 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모아온 돈과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생활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직접 집안일과 요리를 해내고, 구약소에서 여러 행정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부모님께 의지해 살아왔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제 시간과 생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공부와 생활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교환학생 경험은, 제게 분명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자기 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에서 힘들었던 일은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오기 전 급히 준비한 JLPT 3급 수준의 일본어 실력으로는, 전부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완전히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공 수업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았고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직접 칠판에 필기하는 글자를 읽지 못해 당황할 때가 많았고,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수업에서 우연히 친해진 일본인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자극을 받아 일본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떻게든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강의를 녹음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와 복습을 꼼꼼히 하는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학기 말에는 처음과 달리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히 언어 실력을 키운 것에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 자체가 성장의 증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힘든 경험은 일본에 도착한 직후 구약소에서의 행정 절차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튜터를 배정해주어 큰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

부모님과 가족들의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았지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졸업학점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전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4학년 까지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있을지 불안했던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교환학생과 졸업학점을 비교해본 결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더 의미있다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지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습니다.